

| 제21회 한일합동수양회 합의문 |

2018년 10월,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대전환기에 남한과 북한은 화해와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. 그러나 한일관계는 아직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. 이러한 상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난 43년간 자매관계를 이어온 서울제일교회와 니시카타마치교회는, 제21회 한일합동수양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『생명·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』을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인식을 공유하고, 양 교회가 수행할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합의하였다. (2018년 10월 7일, 서울제일교회에서)

■ 공통인식

- ①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.
- ②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각국의 군국화 움직임에 반대한다.
- ③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폭탄, 핵발전소에 반대한다.
- ④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생명운동의 시급성을 공유한다.
- 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데 동의한다.
- ⑥ 양 교회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공유한다.

■ 앞으로의 과제

- ① 북한 봉수교회 뺑공장 지원사업 등 북한 시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함께 한다.
- ② 남북교회의 공동기도회가 개최될 시 양 교회가 함께 참가한다.
- ③ 한국 사드(THAAD) 배치 반대 및 오키나와기지문제의 해결, 일본헌법 9조 유지에 협조하고 연대한다.
- ④ 원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, 에너지 절약 및 재생가능한 대체에너지 사용을 실천하며, 이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확산되도록 한다.
- ⑤ 양 교회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 녹색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산한다.
- ⑥ 일본군 '위안부'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.
- ⑦ 양 교회의 설교나 간증 등을 월보 등에 소개하고, 월 1회 주일예배에서 "공동기도"를 계속한다.
- ⑧ 양 교회의 역사를 공부한다.
- ⑨ 양 교회의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, 매년 만남을 통해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한다.

일본기독교단 니시카타마치교회 /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